

2.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 내년 1000억달러 돌파...韓이 최대

[원문보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이 내년에 1000억달러(약 115조원)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최근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내년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 규모가 1013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반도체 칩 제조 업체들의 꾸준한 투자가 전 공정 및 후 공정 반도체 장비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광폭 지원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9월 통과 추진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잠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법 초안은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위가 함께 과정을 협의한다.

▶ "수입 100% 반도체 소재 국산화"...정부, 소부장 성과 공유

[원문보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구리도금소재(도금액)는 미국·일본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국내 A사는 정부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고품탄 구리범프 형성이 가능한 도금액을 개발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사와 라인 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내 일부 국산화가 예상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정책 지원성과를 공유했다.

▶ "반도체 미세공정기술, '핀펫'지고 'GAA'뚝다"

[원문보기](#)

"반도체 미세화 공정 기술은 어디까지 진화할까"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을 주도했던 '핀펫(FinFET)' 기술이 지고,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새롭게 뜨고 있다. 18일 특허청이 주요 5개국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반도체 미세화 공정기술의 주력이었던 핀펫(FinFET) 기술 특허 출원은 지난 2017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특허 출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산업의 쌀 MLCC 하반기 공급부족 우려...전자제품 생산 빨간불

[원문보기](#)

올해 하반기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의 공급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는 스마트폰, 생활가전,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인 만큼 반도체로 한정된 공급난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3위 MLCC 제조업체인 일본 다이요유덴의 말레이시아 공장이 지난달부터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 파운드리 진출 선언 인텔, '사상 최대' 34조 규모 M&A 추진

[원문보기](#)

미국 종합반도체기업 인텔이 세계 3위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종 성사될 경우 인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 된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은 반도체 제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파운드리와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